

제 1 교시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2부 인문·예술 평가원화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오직 단 하나 당신뿐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오르비 섹시스타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터 싱어는 ‘㉠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다.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지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철학자들은 거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격률’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피터 싱어는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 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한다.

한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거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일반적으로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잉여적 물음이다. 그러나 피터 싱어는 이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한 방식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는 이런 종류의 물음이라는 것이다.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즉 그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할 이유들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물음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물음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면서 해당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특정 물음과 다른 물음들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특정 물음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윤리와 관련된 특정한 철학자의 용어를 인용하면서 특정 물음에 대한 거부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지닌 다른 물음과 비교하면서 특정 물음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물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 윤리학과 달리 메타 윤리학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물음을 던져 봄으로써 윤리적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 ①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고기를 구매해야 하는가?
- ② 인간이 죽기를 선호할 때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 ③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때 사치품을 사는 것이 윤리적인가?
- ④ 윤리학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⑤ 나의 탄소 발자국이 지구 평균값보다 높다면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3. <보기>는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이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
 논지 전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 적절한 물음이 아니다.
 견해 1: < ㉡ > ⇔ < ㉢ >
 견해 2: < ㉣ > ⇔ < ㉣ >
 ⇒ 결론: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하여 할 이유들에 대한 물음이다.

- ① ㉡: 개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윤리적 원칙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물음은 무의미함.
- ② ㉢: 윤리적 법칙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물을 필요조차 없음.
- ③ ㉣: 윤리의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음.
- ④ ㉣: 물음에 이미 전제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잉여적인 물음임.
- ⑤ ㉣: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은 물음으로, 행위의 이유를 묻는 물음임.

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A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근거로 댐 건설에 반대한다. A에게 생명에 대한 외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한편 B는 이 논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자신과 A에게 ‘왜 윤리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 ① A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함으로써 댐 건설과 관련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②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으로 여길 것이다.
- ③ 만약 A가 개인적 격률로서의 생명에 대한 외경을 주장한다면,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요청하기 어려워진다.
- ④ A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생명에 대한 외경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면, A에게 B의 물음은 유의미하지 않다.
- ⑤ 만약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한다면,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해 해당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이다. 그는 ㉠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 면(面)의 평면성이다.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원근법과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 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혹자들은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 있으며, 주제란 문학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색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서 극찬하고, 사실주의 미술,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마네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다.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 평론했는데, 그는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술 평론에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하였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거셌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네,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간과하고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무시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5. 윗글을 읽은 독자가 ㉠, ㉡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에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② ㉠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 데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고찰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③ ㉠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미술은 정치나 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게 되었다.
- ④ ㉡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거대한 색면을 제시하는 미술 작업에 대해 긍정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 ⑤ ㉡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6. 윗글의 ‘그린버그’와 ‘칸트’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 ① 회화에서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없다.
- ② 회화의 형식을 통해 회화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고 판단된다.
- ③ 회화는 교훈적이 아니라 사실적이어야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다.
- ④ 회화에는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생각이나 판단이 드러나야 한다.
- ⑤ 회화의 미적 가치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관념 등과 무관하게 평가될 수 없다.

7. <보기>는 그린버그의 이론에 대한 미술 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보기>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회화의 2차원성은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으로, 모더니즘 회화는 2차원성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입니다.

㉡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작품의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을 둘러싼 관습과 관습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비평가의 평론 등이 얽혀서 이루어진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예술은 행동(action)이고, 예술가는 행동가(actor)이며,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장(arena)입니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① ㉠에서 회화의 2차원성이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며 모더니즘 회화가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라고 한 것은 2차원 캔버스를 통해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린버그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겠군.
- ② ㉡에서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순수 추상 미술을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치 있게 평가한 그린버그의 생각과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에서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당대에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던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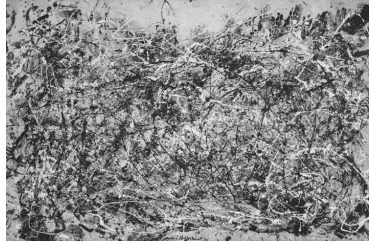
- ④ ㉣에서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린버그의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겠군.
- ⑤ ㉤에서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 작용한다고 한 것은 그린버그의 이론에 대해 예술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입장을 지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겠군.

8. 윗글의 그린버그의 관점에 입각하여 <보기>의 (가),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나)

(가)는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다. 1866년에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감정을 배제한 채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미술 규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당시 미술계로부터 혹평을 받은 바 있다. (나)는 폴록의 1948년 작인 <No.1>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회화 표면에 드러나는 평면성을 통해 화면을 마치 거대한 벽화처럼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 ① (가)는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체감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술 규범을 깨뜨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나)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가 등장한 이후에 (나)가 등장하게 된 것은 미술사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작품에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품의 형식에 집중하여 미적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캔버스의 면(面)이라는 회화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라캉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 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이다.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므로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때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 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라캉은 “①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실재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재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므로 라캉은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라캉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 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생톱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톱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톱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촉각을 세운다.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재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9. 밑줄에 드러난 ‘라캉’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에 대한 모순적인 인식에서 기인한다.
- ② 자아는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하여 만들어 낸 거짓된 이미지이다.
- ③ 인간의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 ④ 상상계 단계의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한다.
- ⑤ 인간은 현실 세계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실재계를 인식할 수 있다.

1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타인의 사랑을 추구한다.
- ② 인간의 욕망은 상징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인간의 욕망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④ 불완전한 신체와 정신을 타고난 인간은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 ⑤ 언어와 규범의 세계에서 이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11. 윗글의 ‘라캉’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되며,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한 중개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겼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라캉과 지라르는 모두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군.
- ② 라캉과 지라르는 모두 욕구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군.
- ③ 라캉은 언어를 통해, 지라르는 타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 인간이 욕망을 추구한다고 보았군.
- ④ 라캉은 지라르와 달리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고 보았군.
- ⑤ 지라르는 라캉과 달리 인간과 욕망의 대상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모델로 인해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군.

12. ‘라캉’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동음이의어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실재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 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이다.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에 갇히기보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이상스를 추구한 존재로 평가받기도 한다.

- ① 조이스는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쾌락을 느꼈겠군.
- ② 조이스가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한 것은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행위라고 할 수 있군.
- ④ 조이스가 애매 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생뚱을 통해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한 조이스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실존을 실현하려 한 존재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베르그송은 우리의 인식이 관념론과 실재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 기관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는 지각 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인 표상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 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물질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종합해 '얼음'이라는 표상을 얻어 낸다. 하지만 얼음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얼음은 우리가 아는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의 이미지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A]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 중,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를 통해 얻어진 '표상'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감각 기관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 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 보고,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했다. 그는 영화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 낸 것이며, 실제의 운동을 단속(斷續)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 보았다.

들뢰즈는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 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서 재해석하였다. 그는 영화에서의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 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우리가 파악 할 수 없는 대상의 실재를 잠재성으로 보고, 이는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 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 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영화를 인간의 시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재들을 포착해 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다.

들뢰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와 닮았음에도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인간의 눈과 달리 기존의 개념이나 관습 혹은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들뢰즈는 이미지와 지각 작용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믿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낸 셈이다. 결국 들뢰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 본 것이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철학의 장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② 표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견해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이미지와 지각 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특정한 영화를 예로 들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 ⑤ 감각 기관의 한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러한 한계를 부정하는 입장과 비교하고 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상은 물질이 가진 이미지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② 베르그송은 표상이 물질 자체와는 다르며, 인간의 지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베르그송은 영화가 단속적 이미지를 연결해 실제 운동의 이미지 중 일부만 드러낸다고 보았다.
- ④ 들뢰즈는 실재하지 않으나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영화가 포착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들뢰즈는 영화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이라 보았다.

15. 윗글에 나타난 ‘들뢰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진가는 카메라의 셔터만 눌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취급되지 못했다. 하지만 앙드레 바쟁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진이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내며,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회화에서는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회화는 화가가 무한한 이미지에서 지각한 표상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사진은 인간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하여 현실에 대한 왜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회화는 인위성에 기초하는 반면 사진은 자동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표상 체계를 통해 세계를 채우려 하는 반면, 사진은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다.

- ① 사진이 예술로 취급되지 못했던 것은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 줄 수 있는 카메라의 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한 점도 작용했겠군.
- ② 회화에서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화가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여 얻어진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사진이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가 자동성에 기초해 우리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카메라가 촬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가 이미지를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이 드러내어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사진이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6. [A]와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개념은 인간이 인식한 내용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성을 지닌다.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개념이 지시하는 현실의 사물 자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상의 개념은 대상의 실제 자체와는 다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갖는 개념이 그 사물의 일부만을 추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물자체’라 지칭하고, 이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물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이념’을 제시한다. 이념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는 없으며, 실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 ① ‘개념’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재하지만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 ③ 사물에서 얻어진 표상은 ‘사물의 일부만을 추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 ④ 외부 세계의 물질과 ‘물자체’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완전하게 인식될 수 없다.
- ⑤ ‘개념’은 지각 작용으로 얻어지는 표상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17~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화학자인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하여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융은 무의식의 영역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후천적이며 개인의 체험이 쌓여 있는 곳으로 꿈과 관련된 영역이고, 후자는 생득적*으로 주어진 인류의 보편적 지층(地層)으로 신화적인 원형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캠벨은 인간의 일생이 서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의 오랜 반복에서 이루어진 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신화의 보편 구조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그는 신화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의 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며, ㉠ "신화는 어느 곳에서 채집된 것이든 그 다양한 의상 아래로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똑같은 얼굴'을 '원질 신화'라고 하였다.

캠벨은 통과 의례를 '분리-입문-회귀'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가 말한 원질 신화는 이 과정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그는 신화에 따라 이 세 단계 중의 어떤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의 내용들은 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서술되기도 하지만, 신화들의 영웅이 겪는 모험의 표준 궤도는 대개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확대판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질 신화는 바로 신화 속 영웅의 삶에서 나타난다. 영웅은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 승리를 ㉡ 거둬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원질 신화에서 영웅의 삶은 '출발', '입문', '귀환'의 순차적 흐름을 보이며 이 흐름은 통과 의례의 '분리-입문-회귀'의 과정에 대응된다. 각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요소들이 있다.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어떤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로부터 영웅으로서의 소명을 전해 듣는다. 이를 통해 영웅은 자아를 각성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거나, 그 소명을 거부하여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르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영웅은 낯선 세계로 떠나게 된다.

입문 단계는 낯선 세계에서 귀환하기 전까지의 과정이다. 이 세계에서 영웅이 겪는 첫 번째 시련은 어떤 공간에 갇히는 것이다. 이는 낡은 자기가 죽어야 새로운 자기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후 영웅은 혼자 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비현실적인 괴물들과 싸우는 시련을 겪게 된다. 여기서 조력자는 대체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생에서 일정한 모험을 거친 사람들, 즉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야말로 조력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인류의 보편적 발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영웅이 물리치는 괴물들은 인간 내부의 비합리적인 야만성을 상징한다. 온갖 장애물을 극복한 영웅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과정은 여신과의 결혼이다. 여신은 모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포함한 존재로 영웅을 구원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데, 여신이 숭한 성취와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웅과 여신의 결혼은 영웅이 이제 온전히 삶의 전체성을 이해할 정도로 성숙한 자아로 성장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출발 단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웅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도 귀환 단계에서는 입문 단계 이전의 세계로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영웅은 귀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영웅은 불로불사 여신의 축복받은 섬에 아예 영원히 눌러앉아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웅은 귀환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에 맞서게 된다. 영웅은 이 세력을 물리치거나 따돌려서 출발 단계의 세계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조력을 받기도 한다. 외부의 조력은 출발 단계의 세계 자체가 영웅의 귀환을 고대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귀환 관문의 통과는 낯선 세계에서 변화한 영웅이 그 변화를 출발 단계의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영웅은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세계와 시련을 주었던 낯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출발 단계의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킨다. 결국 그는 변증법적으로 완벽히 통합된 자아가 되어 하나의 삶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원질 신화의 이와 같은 서사 구조는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의 대립 구조, '출발'과 '귀환'의 대립 구조와 같이 이항 대립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영웅은 이러한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는 서사 속에서 이 대립을 통일시킨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항 대립 구조의 서사 구조는 대중문화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할리우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는 원질 신화의 서사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

17.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원질 신화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② 신화에 대한 캠벨의 주장과 관련되는 융의 주장은 무엇인가?
- ③ 원질 신화의 세 과정 중 어떤 과정이 생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원질 신화에서 영웅이 귀환하지 않은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⑤ 원질 신화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야기 요소는 무엇인가?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리-입문-회귀'의 통과 의례 구조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② 캠벨은 원질 신화의 '출발', '입문', '귀환'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③ 이항 대립 구조에서 '출발'은 '출발 단계의 세계'에, '귀환'은 '입문 단계의 세계'에 대응된다.
- ④ 융은 개인 무의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면서 잠속에서의 꿈과 관계된 무의식 영역으로 보았다.
- ⑤ 캠벨에게 신화 속 여신은 영웅을 파멸시킴으로써 영웅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된 자아가 되도록 돕는 존재이다.

19.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나라의 신화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모험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서사 구조의 바탕은 동일적이다.
- ②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신화 속 원질 신화의 기본 서사 구조는 다양하지만 이야기의 요소들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③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 구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화 속에는 영웅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④ 여러 지역의 신화 속 영웅 이야기의 전체 구조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 구조의 각 단계에서 영웅들의 반응은 모두 동일하다.
- ⑤ 여러 나라의 신화에서 보이는, 영웅들의 이야기 구조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영웅들의 신화적인 원형 이미지들은 개인의 다양한 체험이 축적되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20. 윗글의 원질 신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과 의례의 구조에서 ‘재생의 삶’이라는 상징성이 분리되었다.
- ②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자신의 소명을 알려 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 ③ 영웅이 출발 단계에서 살았던 삶의 세계 자체는 영웅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 ④ 귀환 단계에서의 영웅은 앞 단계의 두 대립적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⑤ 영웅이 낯선 세계의 괴물을 처치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비합리적 야만성을 없애는 것이다.

21. <보기>는 영화의 기획안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 작품 설명

1) 작품의 특성화 방안: 전체 3부작 영화로캠벨의 이론을 활용함.

2) 인물 소개
 A: 주인공, K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인물
 B: K에게 앞장서서 대항하여, A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K에게 쫓기는 노인

3) 줄거리
 1부. 특별한 힘을 가진 물체 X를 탈취한 K는 그 힘으로 전 우주를 지배하려 한다. 한편 K의 힘이 미치지 않았던 행성에서 평범하게 살던 A는 우연히 자신의 잠재된 능력으로 노인인 B를 구한다. A의 능력을 알아본 B는 A에게 K에 저항하는 군대에 함께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A는 거부하고 떠나지 않는다. A의 존재를 알아차린 K는 A를 죽이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행성에 군대를 보낸다. K의 군인들이 그의 친구들을 죽이고 행성은 K의 지배를 받게 된다. A는 이를 목격하며 B와 함께 저항군의 기지로 간다.

2부. 저항군에 참여한 A는 K가 보낸 군인들로 인해 몇 차례 위기에 처하지만 B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하지만 B는 A를 구하려다 치명상을 입게 되고 M을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긴 채 죽는다. A는 B의 유언에 따라 M을 찾아간다.

3부. 물체 X를 지키던 기사단의 스승이었던 M은 A를 훈련시켜 K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강하게 만들고, 물체 X의 회생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수련을 마친 A는 K와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고 물체 X의 회생 능력을 이용하여 여러 행성과 자기의 고향 행성의 재건을 돕는다.

- ① B가 저항군에 참여한 A를 도운 것에서 B를 영웅의 조력자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A의 친구들이 죽게 된 것은 A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희생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K가 보낸 군인들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A가 극복한 것은 미성숙한 자아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아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A와 K의 마지막 싸움은 A가 자신이 살았던 행성을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귀환 관문의 통과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가 M과의 수련으로 능력이 강해지고, X의 사용법도 배웠다는 점에서 A가 M에게 수련을 받는 과정은 영웅이 성숙한 자아가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22.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기부금을 거두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 ② 그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거두었다.
- ③ 가을이 오면 농부들은 곡식을 거두느라 분주하다.
- ④ 시험이 끝나자 감독 선생님들은 거둔 답안지를 확인했다.
- ⑤ 새로 개발된 독감 백신이 독감 예방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발언한 대표적 인물로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있다. 일찍이 그는 아테네 시민들 중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선언에는 공적 영역은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고 사적 영역은 그러한 가치가 결여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근대에도 공적 영역의 우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어졌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나타났다.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부르주아들은 개인적 삶과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것에 몰입하면서 사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재산 소유 행위를 정당화하는 소유적 개인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로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존 로크를 들 수 있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를 원초적 상태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위에 있으며 공적 영역이라는 것도 단지 사적 개인들이 원할 때만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사적 영역이 자연권을 소유한 개인들이 자기 소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장이라면, 공적 영역은 그것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토대가 되며, 공적 영역의 기능은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

자유주의는 정치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삶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만들어 내고, 그 영역을 정치나 사회와 같은 공적 세계의 반대편에 놓으려고 한다. ①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행위는 오직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인 반면에 공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사적인 행위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밀은 개인이 더 높은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밀의 자유주의는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는데,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할에 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존 듀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로,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고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듀이는 공적인 것의 발생은 인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 활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였다고 설명한다. 공적인 것의 발생에 대한 그의 설명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듀이는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 제삼자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듀이의 관점은 자유주의가 자유를 단지 간섭의 부재로만 규정하면서 사적인 계약의 자유는 철칙으로서 사회나 국가가 그것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듀이도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타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듀이는 자유를 단순히 자기주장을 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좀 더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하여 그것을 통해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에 대한 그의 개념 규정은 자유를 단지 타인의 직접적인 방해와 간섭에 노출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론을 배격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자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실현으로서, 타인들과 다층적으로 결사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자유가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개인을 개별적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는 것임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듀이의 비판은 오늘날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인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여러 사상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사례를 통해 유형화하고 있다.
- ③ 동양과 서양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 ④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두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는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재산 소유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 ② 로크는 원초적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거나 평등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③ 로크는 공적 영역의 기능은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 ④ 듀이는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이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로 보았다.
- ⑤ 듀이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실현은 타인들과 다층적으로 결사를 맺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25. ㉠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인간이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 ② 개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한 주권자로서 사적 행위의 주체이다.
- ③ 사적 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정치적·사회적 영역 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 ④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 ⑤ 사회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 영역을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 영역인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시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본질적인 장인데 반해, 후자는 개인들이 단순히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장이다. 전자가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유의 장이라면, 후자는 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종속의 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가 가족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폴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자연적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자유는 폴리스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개인의 시민이 가진 탁월성을 가장 잘 발현하는 것이다.

-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적 영역을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장으로 본 것은 페리클레스가 공적 영역을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본 것과 그 관점이 유사하겠군.

-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적 영역을 본질적인 장으로, 사적 영역을 수단의 장으로 본 것은 자유주의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보다 우위에 둔 것과는 그 관점이 상반되었군.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적 영역인 폴리스를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전제한 것은 로크가 공적 영역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장으로 본 것과 그 관점이 상반되었군.
- ④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적 영역인 가족을 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종속의 장으로 본 것은 듀이가 사적 영역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으로 본 것과 그 관점이 상반되었군.
-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를 공적 영역인 폴리스의 공동선 추구하고 관련되었다고 본 것은 듀이가 자유를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본 것과 그 관점이 유사하겠군.

27. 윗글의 ‘듀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8시부터 65세의 성인이라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무간다(Umuganda)’가 열린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우무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인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공동 작업을 하고 이어서 공동체 회의를 진행한다. 공동체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받고, 어느 이웃의 소란 행위와 같은 지역의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도 한다.

- ① 우무간다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우무간다는 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공동체 회의에서 공유하고 해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우무간다는 성인이라면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자아 형성을 마친 개인들이 공동의 이상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우무간다는 개인의 행위가 공통의 관심과 이해로 인식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간섭할 권한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⑤ 우무간다는 공동체 회의가 정부 정책을 전달받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적인 영역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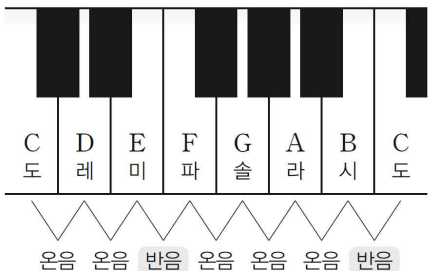
15세기 이전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대부분 신에게 바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르네상스 예술이 전개되고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㉔보편화되어 대중이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이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기에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현대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체계의 4성부 짜임새가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 르네상스 이전 중세의 유럽에서는 기본 성부로 대부분 3개가 사용되었는데,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낮은 음역인 베이스가 추가된 4성부의 음악이 유행하여 3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되었다. 4개의 성부 중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4성부의 음악을 호모포니라고 하고,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4성부 음악을 폴리포니라고 한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포니의 짜임새가,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 간 것과 관련이 있다.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가 ㉕수월했던 호모포니 음악과 달리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들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부르기 어려웠으므로 전문 성가대가 주로 불렀다. 한편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의 선율을 ㉖모방하여 연주하는 모방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현대에도 돌림 노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하였다.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 하는데,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두 음 사이의 음의 개수이다. 예를 들어 도와 솔은 두 음 사이에 도와 솔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음이 있으므로 5도가 된다. 15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1, 5, 8도 음정만을 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㉗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유럽 대륙에서도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3도 음정이므로 15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서는 이를 불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음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㉘파버튼이라는 3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하였는데, 파버튼 악보는 가운데 성부만 기보되어 있고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튼을 즉흥 연주라고 부른다. 파버튼에서 기보되지 않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와 일정한 음 간격을 두고 높거나 낮게 연주하였다. 높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의 4도 위의 음으로 연주되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성부의 음이 도, 레, 미라면, 높은 성부의 음은 파, 솔, 라로 연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전해져 ㉙포부르동이라는 연주 방식이 나타났다. 포부르동은 파버튼과 달리 악보에 6도

또는 8도 음정인 두 성부만 적혀 있고 가운데 성부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가운데 성부는 높은 성부의 4도 아래의 음정으로 연주하였다. 각 성부는 이처럼 긴밀한 음정 관계를 이루며 연주되었기 때문에 세 성부는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음의 길이를 갖게 되었다. 가장 높은 성부가 8분음표로 연주되면 아래의 두 성부도 같은 길이로 연주하는 것이다.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무지카 픽타라는 ㉚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여 음들을 변형하여 연주하는 원칙을 지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 4도의 예방’이다. 4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그림>

경우를 완전 4도, 온음이 셋인 경우를 중 4도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파와 시 사이는 온음이 셋이므로 중 4도이다. 르네상스 음악가들은 중 4도가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여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해야 할 때는, 시를 반음 낮춤으로써 완전 4도로 바꾸어 연주하였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이나 가락을 표현하는 가사 그리기 기법이 유행하였다. 예를 들어 ‘오르는’이라는 가사는 낮은 음에서 점차 높은 음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음악을 통해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선율: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
- *협화 음정: 두개의 음이 함께 울렸을 때 진동수의 비(比)가 단순하여 잘 어울리는 음 거리.
- *온음: 장음계에서, ‘미·파’, ‘시·도’ 이외의 장2도 음정. 두 개의 반음을 가진 음의 간격.

2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본 성부의 수는 3개였다.
- ②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악보의 대중화가 르네상스 시기 음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 ③ 모방 기법은 각 성부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짜임새가 유행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 ④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높은 음역대의 성부가 새롭게 추가되어 성부의 짜임새가 변화하였다.
- ⑤ 15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미학적 즐거움을 위한 음악보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음악이 주를 이루었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유행하던 시기의 영국에서는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사용하였다.
- ② ㉠의 형식이 대륙에 전파된 것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③ ㉡으로 만들어진 노래에서 각성부는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길이의 음을 가졌다.
- ④ ㉠과 ㉡에서 연주된 높은 성부의 음이 같다면 가운데 성부의 음도 같다.
- ⑤ ㉠과 ㉡은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지만,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는 같았다.

30.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이 악보는 포부르동을 연주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를 기록한 악보의 일부야. 아래 악보는 이 노래 중 높은 성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당시에 통용되던 규칙을 정확히 지키며 연주해 보자.

학생 2: [A]의 가운데 성부는 (㉠) 음으로 연주하고, [B]를 가운데 성부와 함께 연주할 때는 높은 성부인 시는 (㉡) 연주해야겠네.

- | | | | |
|---|---|-------|--|
| | ㉠ | ㉡ | |
| ① | 미 | 반음 높게 | |
| ② | 미 | 반음 낮게 | |
| ③ | 레 | 반음 높게 | |
| ④ | 레 | 반음 낮게 | |
| ⑤ | 도 | 반음 높게 | |

31.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였는데, 몬테베르디는 이를 제1 작법과 제2 작법이라고 불렀다. 제1 작법은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양식으로 음악이 가사에 우선하여 다성부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으로 연주된 것이고, 제2 작법은 주선율을 강조하는 양식으로 가사가 음악을 지배하여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제2 작법은 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베이스 반주를 곁들여 주는 기법인 계속 저음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강조하려는 주된 성부만 성악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성부는 저음의 기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① 가사의 의미 표현은 르네상스 초기보다 중기에, 바로크 시대의 제1 작법보다 제2 작법에서 중시되었겠군.
- ② 3성부나 4성부 음악에서의 소프라노 성부는 바로크 시대의 제2 작법에서 기악 성부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겠군.
- ③ 바로크 시대의 제2 작법은 15세기 중엽 이전 유럽 대륙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군.
- ④ 바로크 시대의 제1 작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는 성부가 명확하여 전문 성가대가 아닌 일반인들도 따라 부르기가 쉬웠겠군.
- ⑤ 바로크 시대의 제2 작법의 사용은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 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

3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두루 퍼져
- ② ㉡: 쉬웠던
- ③ ㉢: 본떠
- ④ ㉣: 전해져 퍼지면서
- ⑤ ㉤: 알려진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다섯 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하였다. 아그리파의 다섯 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 할 수 있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먼저 ㉠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이성의 논변 형식’은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런 상이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가 ㉡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이러한 ㉢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 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 ㉣ ‘순환의 논변 형식’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감각 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고대 회의주의자들인 피론주의자들은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Ataraxia)’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갑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저 ㉦ 돼지의 동요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피론*의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피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회의주의의 대표자로 사물의 본래 성질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판단을 멈추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3.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의주의자들은 철저한 학문적 의심을 활용해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입증했다.
- ②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독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어떤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 ④ 독단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 ⑤ 피론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34. ㉠~㉣과 관련한 회의주의자들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대응함.
- ② ㉡: 꿈에서 들은 예언을 절대적 진리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예언을 꿈에서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응함.
- ③ ㉢: 사물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의 기준을 다시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응함.
- ④ ㉣: 신의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 입증되며, 경전은 신의 말이므로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신과 경전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응함.
- ⑤ ㉤: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참된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대응함.

35. 윗글의 ㉠, ㉡가 의미하는 바를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추론한 내용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회의주의 철학자 아이네시테모스는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지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절대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철학적 지식은 절대적 진리로 확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이네시테모스의 논변 형식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물리적 실재 X가 A에게는 x 로, B에게는 X' 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x 와 X' 중 어떤 것이 실재와 근접한 모습인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X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	㉡
①	X의 실재를 알아내고자 고뇌하는 사람들	x 와 X' 중 어느 것이 X와 가까운지 판단을 중지한 상태
②	X에 대해 판단을 중지한 회의주의 철학자들	x 와 X' 중 어느 것이 X와 가까운지 판단을 중지한 상태
③	자신의 발견을 참이라 믿는 철학자들	철학적 지식을 절대적 진리로 확정된 상태
④	지각을 통한 진리 인식 가능성 자체에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	물리적 실재 X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⑤	대상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	지각은 절대적 지식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

36. 윗글을 참고할 때, '아그리파'의 관점에서 <보기>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귀납적 논증의 경우, 결론은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는 못한다. 사례들이란 무한하므로, 무한한 사례를 인간이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역적 논증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 결론의 명제는 전제가 참인 경우 도출된다. 결국 결론은 전제를 통해 타당성을 얻는다. 그런데 연역적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는 어떻게 참으로 설정될 수 있을까? 이는 사실상 결론을 포함한 명제들을 종합해서 귀납적 논증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귀납적 논증의 결론이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로 논증의 근거가 모두 증명되지는 않았음을 들 수 있다.
- ② 귀납적 논증에서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은 지각 불가능한 사례들의 축적으로,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임을 알 수 있다.
- ③ 연역적 논증의 전제는 모든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 ④ 연역적 논증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도출하게 되는 순환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 ⑤ 연역적 논증은 전제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 역시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닐 수 없어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셈이다. 회의주의를 통해 우리가 ㉠ 라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면,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근대 '이성의 시대'에 '신앙의 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회의주의와 신앙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 ①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
- ② 신을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
- ③ 정당한 학문적 의심을 지닐 만큼 이성적이지는 않은 존재
- ④ 회의주의를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와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존재
- ⑤ 신의 존재 외에는 어떠한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 존재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껏 알려져 있는 지식과 관념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면,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모색하게 된다. 가추법(假推法)은 관찰된 사실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 통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가추법을 정립한 철학자 퍼스는 다음의 논증을 사례로 들어 가추법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책상 위에 한 움큼의 하얀 콩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콩 옆에 놓인 자루를 보고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결과) 이 콩들은 하얗다(ㄱ)
- [A] (규칙) 이 자루에 들어 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ㄴ)
- └ (사례)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ㄷ)

위 추론의 출발점인 ‘결과’는 관찰된 사실로서, 일반적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다. 관찰된 사실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과 결합됨으로써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된다. 책상 위에 놓인 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의 자루를 보고 자루 안의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며,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책상 위의 하얀 콩은 이 자루에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퍼스는 연역법 및 귀납법과의 비교를 통해 가추법의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연역법은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추리이자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되는 해설적 추론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귀납법은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종합 추리이자 부분에서 전체, 특수 사례에서 일반으로 향하는 확장적 추론으로, 연역법과 달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다. 퍼스에 의하면 가추법은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추론에 ㉢ 해당하지만,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해 낼 뿐임에 반해 가추법이야말로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진정한 확장에 기여하는 추론이라고 하였다.

가추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 진리로서 주어지는 연역법의 규칙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퍼스는 ‘자연법칙’, ‘일반적인 진리’와 함께 ‘경험’ 등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하여 가추법의 ‘규칙’ 범주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진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 시사하였다.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과 설정된 가설의 결합은 이 둘에서 다루는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하며 이는 논증이 다루는 대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달리 가추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 귀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째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의해 추론의 목적 달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퍼스는 탐구를 ‘의심의 자극에 의해 야기된 것이자 믿음의 상태를 획득하려는 투쟁 과정’으로 규정하고 가추법은 이 과정을 관통하는 논리라고 하였다. 가추법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탐정의 추리에까지 널리 활용되는 추론 방식으로, 이는 그간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추측의 과정에 논리성을 부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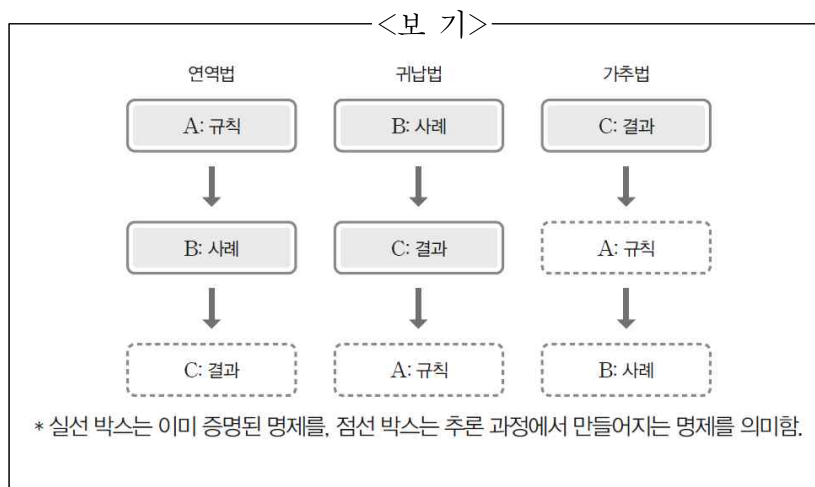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용성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추론 방식 간의 우열을 판단하고 있다.
- ② 특정 추론 방식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고 현대적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추론 방식의 이론적 배경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반된 두 추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다른 추론 방식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특정 추론 방식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과 (ㄴ)의 대상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
- ② (ㄴ)이 참임이 전제될 때 (ㄱ)을 수긍할 수 있다.
- ③ (ㄱ)과 (ㄴ)이 결합되어 도출된 (ㄷ)은 (ㄱ)을 (ㄴ)의 사례로 귀결시킨다.
- ④ (ㄷ)이 (ㄱ)의 이유로 기능할 때 이 추론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⑤ (ㄷ)은 (ㄱ)과 (ㄴ) 간의 유사성과는 별개로 도출된 새로운 유형의 사실이다.

40. <보기>는 윗글에 제시된 추론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역법의 C는 A를 B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 ② 귀납법의 B,C 간에 발견되는 유사성은 A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③ 연역법은 해설적 추론으로, 연역법의 C는 A가 의미하는 범위 이상의 지식을 도출하지 못한다.
- ④ 연역법의 A와 달리, 가추법의 A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 상황에서의 진리 등이 포함된다.
- ⑤ B와 C를 통해 A를 도출해 내는 귀납법과 C에서 출발하여 B를 도출하는 가추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향한다는 점에서 확장적 추론으로 분류된다.

41.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간단해서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라네. 하지만 그건 관찰과 추리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나는 자네(왓슨)의 구두에 황토 흙이 묻어 있는 걸 관찰을 통해 알았네. 그런데 워모어가(街) 우체국 건너편에는 도로 공사를 하느라 길을 파헤쳐 놓아서 흙이 드러나 있지. 그 흙을 밟지 않고선 우체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리고 그 유난히 붉은 황토는 내가 알기로는 이 근방에서 거기 말고는 없네. 여기까지가 내가 관찰한 것일세. 나머지는 추리해 낸 것이지.”

.....

코넬 도일의 소설 「네 사람의 서명」에서 인용된 셜록 홈스의 위 대사는 이중으로 진행되는 가추법의 추론 과정을 함축한다. 하나는 ‘왓슨의 구두에 흙이 묻어 있다.’라는, 관찰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진행되는 추론이며, 다른 하나는 앞의 결과에 포함된 ‘흙’이 ‘유난히 붉은색을 띤 황토’로 구체화 된 관찰 결과에서 출발하는 추론이다. 전자는 ‘비포장도로를 걸어 다니면 구두에 흙이 묻는다.’라는 규칙을, 후자는 ‘(㉠)’라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왓슨’이라는 사례에 적용한 설명을 도출한다. 후자에서 설정된 규칙은 전자의 그것과 달리 홈스의 경험적 근거에 의지하며, 특수성이 강하다. 전자의 추론에서 결과와 규칙이 지닌 ‘(㉡)’(이)라는 유사성에 기반하여 ‘나머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이 ‘왓슨은 비포장도로를 걸어 다녔다.’로 형성되며, 이 문장은 다시 후자의 추론에 의해 ‘왓슨은 부근의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 워모어가 우체국을 다녀왔다.’라고 구체화되어 왓슨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	㉡
①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의 황토는 유난히 붉은 색을 띠고 있다.	비포장 도로의 흙
②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의 황토는 유난히 붉은 색을 띠고 있다.	왓슨의 구두
③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의 황토는 유난히 붉은 색을 띠고 있다.	흙이 묻은 구두
④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은 도로 공사를 하느라 흙이 드러나 있다.	비포장 도로의 흙
⑤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은 도로 공사를 하느라 흙이 드러나 있다.	흙이 묻은 구두

4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일이 처리되다.
- ② ㉡: 옳다고 인정하다.
- ③ ㉢: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다.
- ④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
- ⑤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

[43~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이다. 사회 계약론은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며,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인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사회 계약론의 입장이다. 인간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에 의해 논의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철학자에 의해 ㉡ 주창되었지만 사회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 사회 계약을 다룬 대표적인 학자로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이들의 사회 계약론은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간하며 사회 계약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였고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자기 보전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전을 ㉢ 도모하는 자유 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이를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하며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권의 양도가 자신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며 개인은 계약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회 계약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각자의 자연권을 결합하여 이를 인위적 인격에 양도하게 된다. 이 모든 권력을 양도받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의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고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였다. 홉스는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절대 군주에게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였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상태로,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본성으로 갖는다. 자유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고,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인 자연법의 집행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산은 개인의 생명, 소유물, 자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기 보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로크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완전한 평등성이 ㉤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로크는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국가는 사회 계약에 의해 권력을 얻게 되지만 개인들은 저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국가에 양도하였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혁명을 통해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 출범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였다. 루소는 인간이 자기 보전의 이기적 욕구,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자유의 주체로서 갖는 자유 의지, 그리고 인간의 완성 가능성의 근거인 이성 등 네 가지 본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전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 후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의 자유 의지가 발현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 특수 의지가 발현되면서 원시 상태는 투쟁이 만연하는 전쟁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 하지만 루소는 인간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 일반 의지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자유는 인간의 자격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도덕성의 근원이 되며 사적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사회 계약의 바탕이 된다. 또한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원초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로 격상될 수 있는 완성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고, 이는 일반 의지가 참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인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 계약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이 가지는 일반 의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구성원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어떤 통치 행위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구성원 모두에 의한 통치라고 하였다.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계약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 계약론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사회 계약론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④ 사회 계약론이 시대별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여러 학자의 다양한 견해를 특정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44. 윗글에 소개된 학자들이 <보기>의 '보텔'의 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권이라는 개념은 16세기 말 보텔에 의해 시작된 개념으로, 처음에 주권의 개념이 규정될 당시에는 주권이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가지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최고의 권력을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주의 권리가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성립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보텔은 국가의 절대 권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주권에 기반하여 국민을 통치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① 홉스: 군주에게 부여된 국가의 절대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해.
- ② 로크: 국가가 주권에 기반하여 국민을 통치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어.
- ③ 로크: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는 절대 영구적이지 않아. 경우에 따라 부여된 권력이 회수될 수도 있지.
- ④ 루소: 국가의 주권 행사는 결국 개인이 가지는 일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거야.
- ⑤ 루소: 국가가 주권에 기반하여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주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45.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홉스에 따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 ②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존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 ③ 루소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인 이성이 발휘되어 이기적 욕구가 사라지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돌아간 상태이다.
- ④ 홉스와 로크는 모두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로크와 루소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46. '로크'의 입장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인간이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며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②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③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발휘되지 못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④ 재산을 보존하려는 욕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하려는 상황이다.
- ⑤ 모든 개인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4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 상태에서 발휘되어 자연 상태의 진화를 이끄는 것이다.
- ② ㉢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 ③ ㉡이 발휘되어 나타난 상황에서 ㉢이 발휘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 ④ ㉡은 사회적인 공동의 노력을 통해 발휘되지만, ㉢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다.
- ⑤ ㉡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48.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 ② ㉡: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 ③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 ④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⑤ ㉤: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49~5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개별 현상이나 법칙은 그 전제가 되는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는 헵펠의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이 자연 과학에서의 유력한 설명 모형으로 ㉠ 등장한 이래, 역사학에서도 이 설명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헵펠은 역사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과 같은 설명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드레이는 역사적 이해에는 어떤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해 역사에서의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드레이가 ㉡ 언급한 역사에서의 설명은 시저가 기원전 루비콘강을 건넌 행위와 같이 개개의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그에게 행위의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평가적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면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헵펠은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행위에 관한 관찰된 보편 법칙과 규칙성으로 논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로 보았다. 그는 행위자의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은 비판적·평가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행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반면 드레이는 일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제약하는 결정론이라고 하면서 헵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그는 역사가들이 일반 법칙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이 역사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드레이에게 행위에 대한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나 신념, 목적 등과 같은 이유를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드레이는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을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설명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설명에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행해진 그 일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합리적 설명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어 이해해 볼 수 있다.

㉣ [도식] 행위자 A는 유형 C의 상황에 처해 있다.……㉣
 유형 C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
 이것이 A가 X를 한 이유이다.

위의 도식에 따르면 합리적 설명의 핵심은 그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도식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행위의 적절성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 설명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드레이는 설명을 구성하는 각 문장을 ㉤ 진술하는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설명자로 보았다. ㉣, ㉣은 행위를 설명하려는 설명자가 내리는 판단들이며, “유형 C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는 X이다.”라고 단언하는 사람 역시 설명자, 다시 말하면 행위자 A의 행위를 관찰하는 사람인 것이다. 둘째는 행위자 A가 유형 C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설명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행위자 A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드레이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감의 과정은 특정한 상황이 행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것에 기반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숙고했는지를 설명자가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명자는 행위자의 감정에 이입하여 행위자의 판단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드레이의 견해는 자연 과학에서의 설명을 역사학에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사학은 자연 과학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설명자와 행위자가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기본적 차이를 토대로 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이 기본적인 차이가 어떻게 합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방법론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 가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드레이의 주장은 헵펠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서 역사라는 학문의 성격을 보다 뚜렷하게 부각하는데 기여하였다.

4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과학과 역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있다.
- ② 역사에서의 설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두 학자가 논쟁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인간의 행위에 대해 특정 학자와 여러 학자들 간에 주고받은 주장들을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다.
- ④ 행위에 대한 이론의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역사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⑤ 특정 학자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그 이론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5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설명’에서 설명 대상을 인간의 행위로 보았다.
- ② 험펠의 포괄 법칙 설명 모형에서 과학적 설명은 보편 법칙을 적용하여 논증하는 것이었다.
- ③ 드레이는 인간의 행위를 자연 과학에서의 설명 방법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④ 험펠은 역사적 이해에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어서 일반적 법칙으로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⑤ 험펠은 행위의 이유에 기반하여 특정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51. [도식]과 관련하여 ‘험펠’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위자가 C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행위자는 ㉠에 의해 X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도식에서 ㉡은 필요가 없다.
- ③ 도식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설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학에 적용할 수 없다.
- ④ 역사에서의 설명은 자연 과학에서의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도식과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없다.
- ⑤ ㉡에서 행위 X가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보편 법칙이나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A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52. ‘드레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의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우리 학교 학생의 행위가 신문에 실렸어. ㉠ 고2 학생 A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가야 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집에 가는데, 길 잃은 아이를 보게 되었대. 집에 빨리 가야 했지만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 주고 집에 갔다는 내용이야.

학생 2: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A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야.

학생 1: 그러게. ㉡ A의 상황에서는 길 잃은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적절했었을 것 같은데.

학생 3: 내가 A를 아는데, ㉢ A는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대. 길 잃은 아이를 봤을 때 자신의 그 경험이 떠올랐고, 예약 시간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려고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을 거야.

- ① ㉠에는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은 A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으로 볼 수 없다.
- ② ㉡에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상황이다.
- ③ ㉢를 통해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해야 할 적절한 행위에 대한 설명자의 판단과 행위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는 학생 3이 행위의 관찰자가 되어 A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에서 학생 3은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재구성하여 A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5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온
- ② ㉡: 말한
- ③ ㉢: 헤아리기는
- ④ ㉠: 이야기하는
- ⑤ ㉢: 끼치는지

[54~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플럭서스(Fluxus)는 가장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1960년대 미술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플럭서스의 의미처럼 플럭서스 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예술가들은 어떤 공통된 원칙이나 합의된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다만 예술의 범위가 관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넓다든지, 예술을 비롯한 몇몇 낡은 기존 범주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플럭서스는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 즉 삶과 예술의 결합을 지향했다. 플럭서스의 대표적 예술가인 요제프 보이스는 삶과 예술의 결합을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이며,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각을 전공했던 보이스는 플럭서스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나 행위 예술로 작업의 범주를 넓혀 나갔는데, 플럭서스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 개념을 발전시켰다.

보이스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생산한 생산물은 화가나 조각가에 의한 것이든 물리학자에 의한 것이든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예술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러한 보이스의 생각은 ‘확장된 예술 개념’으로 ㉡ 이어진다.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은 서구의 모순된 사회 구조와 서구인의 위기의식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서구 사회는 구조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자본주의 발달은 물질 만능주의를 ㉢ 불러왔으며, 사회 구조는 전문적으로 더욱 세분화되었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정신과 영혼은 황폐해졌다는 것이 보이스의 생각이었다. 보이스의 깨달음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 삶의 현장인 사회의 구조와 형태에 적용하는 확장된 예술 개념을 끌어낸다. 확장된 예술 개념에 따라 조형 작업은 기존의 장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조각’으로 발전한다. 사회적 조각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는 가지적이고 물질적인 예술 작품에서 벗어나 기존의 구태의연한 삶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회의 모든 인간 행위, 직업,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보이스는 또한 전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로 인한 동양과 서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직시하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잉여 가치의 획득을 위해 유통 과정에 투입된 화폐로 보고, 자본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보이스는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면 인간의 자유와 창의력은 ㉣ 들어설 틈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해 마르크스의 자본 논리에 기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또한 보이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합법화된 교환 수단으로서의 증서에 불과한 돈이라는 화폐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 꼬집으면서 ‘자본’, ‘돈’, ‘일’,

‘수입’의 차이를 구분하고, 일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간의 능력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을 의미하며,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일은 수입으로 정확히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결국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창의성이 자본이고 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될 수 없다. 경제적 가치는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확장된 예술 개념인 ‘예술=자본’이라는 공식을 도출했다.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은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며,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따뜻한 감정인 온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주어진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몫을 다할 때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만든 사회적 조각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따스한 조각’이 된다. 공동체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든다면 일종의 치유 과정을 통해 현대 사회가 차갑고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영혼과 삶을 촉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이 보이스의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보이스는 모든 인간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 미술사에서 보이스는 이데올로기에 인간을 종속시키고자 하는 시대에 맞선 인물로, 플럭서스의 자유로운 예술 운동의 흐름 속에서 창의적 인간을 발견하고 이를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

5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이스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의 작품 경향을 도출하고 있다.
- ② 보이스가 주장한 예술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보이스의 생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의 예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보이스의 예술 개념이 플럭서스 운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보이스의 예술 개념과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 개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다.

5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보이스는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 파악한 마르크스를 자본주의에 근거하여 비판하였다.
- ② 보이스가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에 주목한 배경에는 전후 냉전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다.
- ③ 보이스는 물질 만능주의와 사회 구조의 세분화로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졌다고 보았다.
- ④ 보이스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창의성을 발휘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때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보이스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구태의연한 삶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예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56. ㉠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 ②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둘의 결합을 지향했다.
- ③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은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 ④ 참여한 예술가들은 공통의 원칙이나 합의된 프로그램 없이 활동했다.
- ⑤ 참여한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 속에서 예술의 개념을 고찰했다.

57. 윗글의 ‘보이스’의 예술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이스에 따르면, 돈이라는 화폐 가치는 교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돈을 자본으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인간의 창의력은 그 힘을 잃게 된다. 1979년 보이스는 과학 기술과 제휴하여 복수의 작품을 기획·생산하는 멀티플 아트(multiple art) 작업을 통해 자본과 돈의 모순된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는 독일의 10마르크 지폐와 프랑스의 10프랑 지폐, 오스트리아의 20실링 지폐에 각각 “예술=자본”, “나일론 같은 촉감”, “발행 불가”라는 내용을 사인펜으로 적은 후, 그 밑에 “요제프 보이스”라고 서명하였고, 이 지폐들을 10장에서 40장 인쇄하는 연작의 멀티플 아트 작업을 통해 지폐의 기능을 상실한 작품을 생산하였다.

- ① 보이스는 유럽에서 발행하는 지폐들을 활용한 예술 작업을 통해 새로운 교환 수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② 보이스는 지폐를 훼손하여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일이 합법화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③ 보이스는 자신이 서명한 지폐를 여러 장 인쇄하여 예술 작품이 수입으로 정확히 환산될 수 있는 가치를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 ④ 보이스는 돈에 대한 메시지를 지폐에 써서 돈의 경제적 가치는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⑤ 보이스는 멀티플 아트 작업을 통해 지폐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종이 지폐는 교환 수단일 뿐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58. <보기>는 강연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설명한 <그의 기획>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연자: 요제프 보이스는 1982년 6월 19일 독일 중부의 도시 카셀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미술 행사인 도쿠멘타의 개막에 맞춰 행사장 본관 앞 광장에 현무암 기둥 7,000개를 부려 놓고, 그 돌무더기의 끝에 떡갈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의 기획>은 도시 전체에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심는 것이었는데요, 나무를 한 그루 심을 때마다 현무암 기둥도 그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7,000그루째 나무는 1987년에 열린 도쿠멘타 개막일에 심어졌습니다. 이때 보이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지금 카셀에는 그때 심은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가로수를 이뤘습니다. 보이스는 평범한 개인들이 예술가가 되어 창의력을 발휘하면 사회 전체가 위대한 예술품이 되는 ‘혁명’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받았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도시를 관통하는 푸른 숲길은 허황된 이상이 현실이 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① 보이스의 기획은 인간의 삶에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조각에 해당하겠군.
- ② 보이스의 이상이 현실이 된 것은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무 7,000그루를 심어서 만들어진 푸른 숲길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따스한 조각’이 되었겠군.
- ④ 보이스가 도시에 나무를 심도록 기획한 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는 기존의 예술 작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보이스의 기획에는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창의성을 발휘해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군.

5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連結)된다
- ② ㉡: 초래(招來)했으며
- ③ ㉢: 입문(入門)할
- ④ ㉣: 지적(指摘)하면서
- ⑤ ㉤: 구속(拘束)되지

[60~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라는 의미만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무력하고 텅 빈 곳으로 인식이 되었었다. 그러나 회화와 조각, 소설과 연극, 철학과 심리학 이론들이 공간이 지닌 구성적인 기능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공간이 충만하고 능동적이며 창조성을 지닌 유의미한 공간으로 재인식되었다. 기존 견해를 따르는 미술 비평가들은 공간과 관련하여 회화의 제재를 ㉠ 공정적 공간, 배경을 ㉡ 부정적 공간이라 불렀다. 그런데 재인식된 공간은 배경 그 자체가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 공정적 부정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회화에서 대기에 대한 인상을 표현함으로써 텅빈곳으로 인식되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 인상파 화가들은 이러한 긍정적 부정 공간을 통해 이전의 관습과 ㉣ 침묵하게 대립하였다. 인상파 화가들은 태양 빛, 안개, 황혼 등의 배경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이들을 제재와 융합하였다. 모네는 시간대와 계절을 달리하며 루앙 대성당 연작을 그렸는데, 이 그림들에서는 공간과 빛이 화면을 주도하고 있어서 제재인 대성당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에서도 배경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와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클림트가 1904년과 1908년 사이에 그린 초상화 세 작품에서 배경에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들은 제재인 인물 못지않게 관람자의 시선을 끈다. 회화에서 공간은 입체파에 이르러 하나의 구성적 요소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브라크는 공간에 대상과 동일한 색, 질감, 실질성을 ㉤ 부여하고, 공간과 대상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뒤섞어 버렸다. 브라크의 <노르망디 항구>에서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려진 대상들 간의 공간들은 대상으로서의 등대, 부두, 배, 돛과 동일하게 조각난 요소들로 ㉥ 표현되어 있다. 브라크는 입체파의 매력에 대해 자신이 감각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연 안에서 ‘감축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그는 대상 주변에서 느껴지는 움직임, 지형에 대한 느낌, 사물들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회화에서 대상과 공간의 관계는 음악에서 소리와 침묵의 관계로 ㉦ 치환해 볼 수 있다. 음악에서 침묵은 소리와 리듬을 인식하기 위한 요소이다. 음악사 전반에 걸쳐서 침묵이 중요한 의미를 지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음악에서 침묵은 일반적으로 악장의 끝부분에 놓여 다만 악장과 악장을 구별 지었을 뿐이다. 그런데 침묵의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음악에서는 악절 중간에 갑자기 휴지가 등장함으로써 침묵이 음악 구성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서 받은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플루트 독주의 음들은 목신이 걷다가 멈추고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발걸음처럼 들린다. 특히 악절 중에 자주 나타나는 휴지들을 통해 목신의 움직임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 음악의 작곡가들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두드러지게 침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로저 세텍은 스트라빈스키의 1910년 작품 <불새>의 피날레에는 음악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번의 침묵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침묵은 긍정적인 부정적 시간이다. 안톤 폰 베베른은 이러한 침묵의 창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매우 간결해서 어느 악장도 1분을 넘지 않았다. 그토록 간결한 악장의 연주들이 침묵의 시간과 서로 어울리면서 숨 막힐 듯한 침묵들로 자주,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된다. 어떤 음악 평론가는 베베른의 음악에서 휴지는 정지가 아니라, 리듬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는 공간·시간 경험을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뚜렷한 구분 선을 지웠다. 이는 물리학 분야에서는 ㉨ 충만한 물체와 텅 빈 공간 사이에, 회화에서는 제재와 배경 사이에, 음악에서는 소리와 침묵 사이에, 지각에서는 형상과 배경 사이에 그어졌던 절대적 구분 선의 붕괴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텅 빈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들이 구성 요소의 하나로 기능한다는 인식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구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귀족적 특권의 붕괴, 생활의 세속화 등과 ‘위계의 평준화’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었다.

6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화와 음악 분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 ② 회화와 음악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간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언급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공간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중심으로 예술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⑤ 회화와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양상을 다양한 작품 분석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61. 윗글을 통해 ㉠의 근거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의 변화가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 ② 공간과 시간이 지닌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적 특성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 ③ 공간이 지닌 시간적 특성을, 시간이 지닌 공간적 특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 ④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예술이 지닌 형식이 아닌, 내용에 주목했기 때문에
- ⑤ 덜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여 그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6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 ㉢는 공간의 창조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 ② ㉡와 달리 ㉠, ㉢는 제재가 회화에서 핵심 요소임을 전제하고 있다.
- ③ ㉢와 달리 ㉠, ㉡는 배경과 제재가 위계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와 달리 ㉢는 배경이 지닌 유의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와 달리 ㉡는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에 대한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63. 윗글을 읽고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공간과 대상의 질적 차이를 없애고 서로 침투하는 방식을 보여 준 작품으로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물병이 있는 정물>이 있다. 바이올린의 목 부분은 나뭇대로 윤곽이 남아 있지만 몸통은 여러 부분들로 조각나, 대상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공간과 섞여 있다. 석고, 유리, 나무, 종이, 공간이 유사한 형태의 흐름 속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인 바이올린과 공간을 확실히 구별하기 어렵다. 브라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파편화시킴으로써 저는 공간과 공간 안의 움직임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었으며 공간을 창조해 내고서야 비로소 대상들도 화폭 안에 끌어들여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 ① 브라크는 새로운 공간을 구현해 냄으로써 대상을 압도하는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군.
- ② 브라크는 바이올린을 조각내어 표현함으로써 바이올린과 공간의 질적 차이를 없애 버린 것이로군.
- ③ 브라크에게 공간의 창조는 대상의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공간이 구성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군.
- ④ 브라크가 사용한 파편화의 방법은 대상뿐 아니라 그가 발견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브라크가 창조한 유사한 형태의 흐름 속에 대상인 바이올린과 배경으로서의 공간이 서로 침투하고 있군.

6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게슈탈트 심리학은 전체로서의 형태나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게슈탈트(Gestalt)’를 사용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며 인간은 어떤 대상을 개별적 부분의 조합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전경은 배경으로부터 두드러져 보이는 것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전경과 배경의 속성, 즉 무엇이 한 영역을 전경으로, 다른 영역을 배경으로 지각하게 만드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루빈은 그림을 통해 전경-배경의 가역성을 기술했다. 그림에서는 중앙의 꽃병 또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얼굴의 실루엣을 볼 수 있다. 주의의 초점을 바꿈으로써 꽃병이 전경이 될 수도 있고 측면에서 본 두 얼굴이 전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전경과 배경을 조직화하여 지각의 장을 마련하고 의식 속으로 받아들인데, 이때 자신의 현재 욕구를 기초로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전경으로 떠올랐던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나면 그 전경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되어 전경으로 떠오른다.

- ① 전경 - 배경의 가역성은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의 절대적 구분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게슈탈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는 전경 - 배경이 지닌 대립 요소들을 동질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전경, 배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제재를 부각하는 배경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게슈탈트 형성과 관련하여 전경 -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배경보다 제재를 강조하는 회화의 기존 관습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전경과 배경의 속성에 관심을 가지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악장과 악장을 구별 짓는 요소로 침묵을 사용한 음악가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6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황이나 사태 따위가 날카롭고 격하게
- ② ㉡: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고
- ③ ㉢: 가리켜져 볼 수 있게 되어
- ④ ㉣: 바꾸어 놓아
- ⑤ ㉤: 한껏 차서 가득한

수능특강 독서 2부 인문·예술 독서 정답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					
②	④	②	①		
그린버그의 미술 비평					
⑤	②	④	②		
라캉의 욕망 이론					
⑤	②	④	③		
베르그송과 들뢰즈					
③	④	③	②		
캠벨의 신화 이론					
③	①	①	①	③	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①	②	③	④	①	
르네상스 음악					
④	⑤	②	①	⑤	
아그리파의 논변					
②	①	①	②	①	
퍼스의 가추법					
⑤	⑤	⑤	③	①	
사회 계약론					
⑤	②	③	⑤	③	⑤
드레이의 행위 설명 이론					
②	④	⑤	②	③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 개념					
②	①	⑤	⑤	②	③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②	⑤	④	①	①	③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